



SK(☞)가 중국 지리자동차그룹과 조성한 뉴모빌리티 펀드를 통해 667억 원을 투자한 스웨덴 전기차 업체 폴스타의 순수 전기차 폴스타2, SK(☞)가 인수한 글로벌 선도 초고속 충전기 제조사인 한국 시그넷 EV가 미국에 설치한 초고속 충전기. 2018년 2500억 원을 투자한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모빌리티 기업 그룹(왼쪽 사진부터), SK그룹은 최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차량공유, 자율주행, 전기차 핵심 소재, 전기차 충전 사업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공격적인 전방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SK(☞)

차량공유·초고속충전기…미래 모빌리티 이끈다

SK그룹이 차량공유, 자율주행, 전기차 핵심 소재, 전기차 충전 사업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전방위 투자를 이어가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SK그룹의 지주사이자 투자전문회사인 SK(주)의 최근 행보를 들여다보면 이 같은 특징은 더욱 두드러진다. 반도체 소재, 바이오, 통신 등 기존 핵심사업에 이어 미래 모빌리티를 그룹의 미래를 이끌 또 하나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다.

기존 산업 외 신성장 동력에 주목
그룹 등 운행·차량공유 모빌리티
전력반도체 등 부품업체 지분 인수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에 직접 투자

●미래 모빌리티 주도할 핵심 플레이어

최근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애플, 구글, 바이두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업체들의 합종연횡이 이어지며 치열한 주도권 확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바로 지금이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의 최적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은 2021년 2060만대, 2025년 5660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IHS마켓 추정치)되고 있다.

전동화, 자율주행, 인공지능, 연결성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밀려나면 어떤 기업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도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5G통신,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반도체 소재, 배터리 등 미래차 핵심 소재 생산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SK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해 나갈 핵심 플레이어로 주목받고 있으며, 과감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부터 글로벌 모빌리티 투자

SK그룹은 SK(☞) 주도로 2017년부터 미래 모빌리티 분야 투자를 본격화했다. 집중 투자한 곳은 운행 공유(Ride Sharing)와 차량 공유(Car Sharing), 모빌리티 기술 개발 회사들이다.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운행 공유 업체 그룹에는 2018년 약 2억3000만 달러(약 2500억 원)를 투자했다. 그룹은 올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 회사)을 통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 그룹 상장이 완료되면 SK(☞)의 투자 지분 가치는 약 5900억 원으로 약 2.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K(☞)가 2018년 약 120억 원을 투자한 이스라엘의 자동차 빅데이터 기업 오토노모(Otonomo)도 올해 2분기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며, 2017년 400억 원을 투자한 미국의 차량공유 스타트업 투로(Turo) 역시 올해 내 상장이 기대되고 있다.

SK그룹, 미래 모빌리티 주요 투자 현황		
기업명	분야	금액
그룹	차량공유 플랫폼	2500억 원
오토노모	차량 빅데이터 기업	120억 원
투로	차량공유 플랫폼	400억 원
시그넷 EV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2930억 원
에스파워테크닉	전력반도체 제조사	268억 원
폴스타	고성능 전기차 회사	667억 원

●전방위 투자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

SK(☞)는 1월 실리콘카바이드(SiC·탄화규소) 전력반도체 생산 체제를 갖춘 유일한 국내 기업인 에스파워테크닉스에 268억 원을 투자해 지분 33.6%를 인수했다. 전기차, 수소차, 전자기기 등의 필수 부품으로 시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SiC 전력 반도체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서다.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전력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SiC 전력반도체는 2030년 100억 달러(약 11조 1230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어 SK(☞)는 4월 초고속 충전기 제조회사인 한국 시그넷 EV의 지분 55%를 2930억 원에 인수하며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했다. 전기차 충전기 글로벌 시장은 2021년 약 33억 달러(약 3조 7000억 원) 규모에서 2030년 220억 달러(약 25조 원)로 연평균 24%의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다.

시그넷 EV는 350kW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를 제조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서 몇 안 되는 기업으로, 초고속 충전기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50%의 이상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SK(☞)는 시그넷 EV 인수 이후 SK그룹 역량을 동원한 선제적 R&D 투자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회사에 대규모 직접 투자도 단행했다. SK(☞)는 최근 중국 지리자동차그룹과 조성한 뉴모빌리티 펀드를 통해 볼보와 지리홀딩스가 합작해 만든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에 약 6000만 달러(약 667억3200만 원)를 투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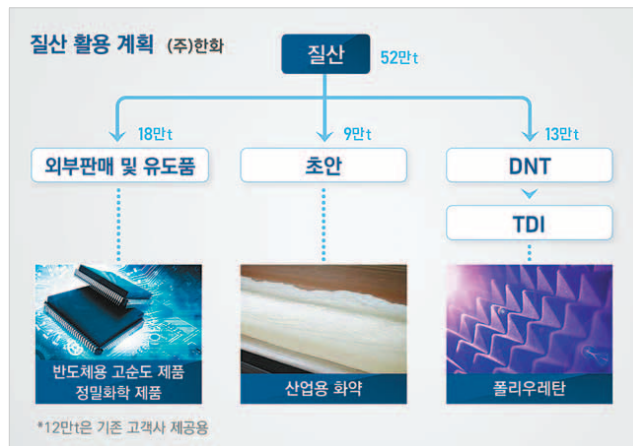
SK(주)의 폴스타에 대한 직접 투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폴스타는 전기차 브랜드인 동시에 ‘전기차 기술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기차 기술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 기술 라이선스 판매나 제휴 등 다양한 사업 모델 운영이 가능하다. SK(☞)는 폴스타와 단순 지분 투자를 넘어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K(☞) 관계자는 “SK(☞)는 친환경 미래차 시장 핵심 소재·기술부터 그룹, 투로 등 핵심 모빌리티 사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왔다”며 “시그넷 EV 인수와 폴스타 투자 등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중화학

스포츠동아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15



(주)한화, 질산공장 건설에 1900억 투자

완공 땀 생산규모 40만톤 늘어…정밀화학분야 강화

(주)한화가 질산 사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에 나선다. (주)한화 글로벌 부문은 2023년까지 총 1900억 원을 투자해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질산 공장을 건설한다. 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12만 톤인 생산 규모는 2년 뒤 52만 톤까지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관심이 커진 반도체 세정제 등 정밀화학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질산은 전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첨단 산업 원료로 수요가 늘고 있다. 글로벌 질산 시장은 지난해 약 7500만 톤, 금액기준 240억 달러(약 27조 원)에 이른다.

(주)한화가 생산하는 질산 52만 톤 중 39만 톤은 자체 소비용 물량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증착 및 세정용 소재로 활용된다. 한화 측은 “단순히 생산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밀화학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솔루션은 3월 30일 1600억 원을 투자해 연 18만 톤의 질산유도품 디니트로톨루엔(DNT)을 생산하는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18만 톤 DNT 제조 시 연 13만 톤의 질산이 필요하다. 질산과 톨루엔의 화학 반응으로 생산하는 DNT는 가구 내장재, 자동차 시트의 폴리우레탄 제조에 사용되는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의 원료이다.

(주)한화와 한화솔루션은 이번 투자로 ‘질산-DNT-TDI’로 이어지는 질산 밸류체인을 구축해 수익성을 키울 수 있게 됐다. 향후에는 질산을 활용한 고성능 복합소재 등의 생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포스코1%나눔재단, 장애예술인 대중화 지원

포스코1%나눔재단(이사장 최정우)이 지난해 영상 누적 조회 700만 회를 기록하며 대중의 큰 호응을 얻은 ‘만남이 예술이 되다’ 시즌 2를 론칭했다. ‘만남이 예술이 되다’는 역량 있는 장애예술인과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협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첫 선을 보인 ‘만남이 예술이 되다’ 시즌 2에는 ‘색(色)을 통해 색(色)다른 예술, 색(色)다른 예술인’이라는 주제로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한다.

두산, ‘수소 TFT’ 신설…수소시장 공략 가속화

수소 생산·유통 등 밸류체인 구축

두산은 최근 두산중공업, 두산퓨얼셀 등 계열사 전문인력을 모아 (주)두산 지주부문에 수소TFT를 구성하고, 수소사업 전반에 걸친 전략 수립에 나섰다

수소 ‘생산’, 저장·운반 등 ‘유통’, 발전·모빌리티 등 ‘활용’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시장을 찾고 비즈니스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수소 TFT의 목표다.

두산은 주요 수소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분야

에는 두산퓨얼셀이 있다. 두산퓨얼셀은 최근 3년 연속 신규 수주액 1조 원을 달성했으며, 2023년에는 매출 1조 5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소모빌리티 분야에선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DMI)이 있다. DMI는 비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수소드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양산에 들어간 회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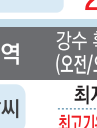
두산중공업은 수소액화플랜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체기술로 만든 액화수소를 수소충전소에 공급해 국내 수소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목표다.

두산 관계자는 “수소 TFT를 통해 보다 높은 비전이 제시되고 그룹의 수소역량을 결집시키는 시너지 전략이 나온다면 더욱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성열 기자 mynhyuk@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21일(수) 음력: 3월 10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실속은 있는 날이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운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 된다. 가능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소신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동 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화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돼지띠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의 확장이나 변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가의 정신이 필요하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서두르지 말라.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오늘의 날씨					21일(수)	
서울	20/0	인천	0/0	춘천	20/0	
	11 28		10 22		8 28	
강릉	20/0	대전	20/0	전주	20/0	
	12 22		10 28		11 28	
광주	20/10	대구	20/0	부산	20/0	
	13 27		12 27		13 22	
창원	20/0	제주	2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2 24		12 22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6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성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